
2023년 개인파산사건 통제조사 결과보고서



새 출발의 디딤돌 서울외생법원

2024. 4. 3.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통계 산출 결과 보고(외부용)

2024. 4. 3.

I. 배경

- 2019년도 하반기에 구성된 개인파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TF에서, 향후 개인도산과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통계 항목을 정하였음
- 한편, 개인파산의 경우에 현재 거의 모든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2018년경부터는 전자적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보고서의 'e-Form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보고서 작성 시에 입력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의 협조를 얻어 2018년도부터 매년 통계를 산출하여 왔고, 아래와 같이 2023년도의 통계를 산출하였음. 다만, 뒤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현재 보고서 입력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내용이나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위 TF의 논의 결과 산출하기로 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거나 항목을 조금 변경하여 산출한 통계들이 있음

II. 통계 산출 결과

1. 개요

- 본 보고서의 대상사건은 2023년도(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에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임
- 다만, 파산선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건의 구체적 통계 산출은 파산관재인이 2023. 1. 1.부터 2024. 2. 28.까지 입력한 내용¹⁾을 바탕으로 하였음

1) 만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위 기간(2023. 1. 1.~2024. 2. 28.) 사이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내용을 기초로 통계를 산출한 것임



2. 파탄시기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

▣ 산출 결과²⁾

파탄시기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동일연도	20.19%	15.85%	17.72%	20.71%
1년	17.76%	15.63%	14.13%	17.79%
2년	7.61%	7.33%	7.88%	7.07%
3년	5.34%	6.29%	5.21%	5.07%
4년 ~ 5년	8.61%	8.50%	9.80%	8.50%
6년 ~ 10년	14.54%	17.65%	16.64%	14.69%
11년 ~ 15년	8.37%	9.23%	9.67%	9.15%
16년 ~ 20년	11.51%	13.49%	11.39%	8.90%
21년 이상	6.04%	6.03%	7.56%	8.11%

▣ 분석

- [2023년도]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들이 54.42%로 절반 이상임. 파탄에 이른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거연도와 비교] 파탄원인이 발생한 동일연도 내지 1년 내에 **조기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2020년(37.95%) 이후 2021년(31.48%), 2022년(31.85%) 감소하다가, 2023년(38.50%)에 다시 증가하였음**. 파탄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채무자의 비율은 2020년(40.46%) 대비 2021년(46.40%)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2년(45.26%)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40.85%) 2020년도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 위 TF의 논의 결과로는 이러한 파탄시기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의 각 항목별 비율을 산출할 것을 예정하였음. 그러나, 현재 시스템상으로 파탄시기 중 “연도” 부분만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득이하게 연도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해당 부분은 추후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시 개선될 예정임



3. 파탄원인 관련

■ 산출 결과³⁾

파탄원인(중복체크)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48.88%	54.90%	48.92%	48.42%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45.71%	52.64%	44.66%	44.66%
재해, 사고	1.76%	1.70%	2.35%	2.29%
이혼	2.15%	1.83%	2.57%	2.15%
의료비 지출증가	17.64%	14.81%	14.81%	15.47%
교육비 지출증가	2.81%	2.41%	2.25%	2.70%
생활비 지출증가	48.88%	51.78%	51.10%	46.79%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	2.40%	2.07%	11.29%	10.95%
도박, 사치 등 낭비	0.39%	0.32%	0.41%	0.70%
보증채무 부담	11.04%	10.56%	10.42%	10.05%

■ 분석

- [2023년도] 파탄원인과 관련하여,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또는 “생활비 지출증가”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높았음. 반면, “재해, 사고”나 “이혼”,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사례는 소수였음
- [과거연도와 비교] 2023년 통계의 경우, 주요 파탄원인인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의 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하고,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

3)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파탄원인”란의 항목을 중복하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출된 통계의 각 항목별 비율의 합계가 100을 초과함



4. 채무자의 채무총액 관련

■ 산출 결과⁵⁾⁶⁾

항 목	액수(만 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채무자들의 채무총액 평균값	29,834	23,944	31,467	33,420
채무자들의 채무총액 중위값 ⁴⁾	9,707	7,113	10,243	10,208

채무총액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5,000만 원 이하	26.29%	23.51%	25.87%	24.54%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4.61%	24.79%	23.34%	24.73%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21.35%	23.21%	21.57%	21.08%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8.78%	9.96%	9.42%	9.57%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7.06%	6.82%	7.09%	7.34%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5.95%	5.64%	6.22%	5.56%
10억 원 초과	5.95%	6.08%	6.50%	7.17%

■ 분석

- [2023년도] 채무총액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70.35%로 상당히 높음
- [과거연도와 비교] 채무자의 “채무총액” 평균값이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2020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 더욱 증가하였음. 다만 2023년 “채무총액” 중위값은 2022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3억 원 초과 채무자의 비율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4) 중위(Median)값이란 어떤 표본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데이터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가운데 오는 값을 의미한다.
- 5) 2018년 말경부터 파산관재인이 보고서 작성 시에 채무자의 채무 총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에 채무자의 채무 총액과 관련된 통계는 2019년도 통계부터 산출 가능하게 되었음
- 6) “평균값”을 구한 항목의 경우에는 일부 사건의 영향으로 그 산출된 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평균값”과 “중위값”을 구한 항목의 경우에는 “중위값”에 초점이 맞추어져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 같음



5.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

■ 산출 결과⁷⁾

항 목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하였던 채무자	5.14%	5.52%	6.50%	6.71%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4.21%	4.54%	5.34%	5.68%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던 채무자	6.73%	6.78%	6.70%	6.18%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0.35%	0.57%	0.70%	1.22%
회생(회단) 또는 간이회생(간회단)을 신청하였던 채무자	0.25%	0.22%	0.21%	0.17%

■ 분석

- [2023년도]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높지 않음
- [과거연도와 비교] 2023년 통계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도산절차(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7) 과거사건 이력의 중국 시점을 관리 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건 종료 시부터 현재의 사건 신청 시까지 기간의 평균] 통계는 추출할 수 없었음



6. 연령대별 등 통계

▣ 산출 결과

연 령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9세 이하	1.48%	1.14%	1.30%	2.11%
30세 ~ 39세	6.90%	5.66%	5.04%	5.69%
40세 ~ 49세	18.94%	16.70%	14.75%	15.23%
50세 ~ 59세	33.57%	32.59%	30.83%	29.44%
60세 이상	39.11%	43.91%	48.08%	47.52%

성 별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남 성	56.70%	58.32%	59.06%	58.03%
여 성	43.30%	41.18%	40.94%	41.97%

▣ 분석

- [2023년도] “50세 ~ 59세” 및 “60세 이상”인 채무자 비율이 76.96%로 대부분을 차지함
- [과거연도와 비교] 2023년 통계의 경우, “29세 이하”, “30세 ~ 39세”, “40세 ~ 49세”인 채무자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 59세”, “6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은 감소하였음. “여성”인 채무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7. 미성년자 자녀 등 관련 통계

■ 산출 결과⁸⁾

항목	비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1인 있는 채무자	7.10%	4.99%	4.94%	2.53%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 있는 채무자	5.10%	3.22%	4.38%	1.49%
부양가족으로 1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채무자	7.40%	5.15%	6.89%	1.41%
부양가족으로 2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채무자	3.40%	2.33%	2.26%	0.38%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	3.50%	2.61%	2.42%	3.62%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	62.10%	83.49%	66.40%	64.95%

■ 분석

- [2023년도]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가 64.95%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연도와 비교] 2023년 통계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음

8) 2022년도까지의 통계치는 동거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임의 가공하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추출한 결과임. 2023년 상반기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기초로 통계치를 산출하였음. 그러나 가족데이터가 아예 입력되지 않은 파산관재인보고서가 존재하여 각 항목별 비율의 합이 100%에 미치지 않음. 미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을 동시 부양하는 경우의 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8. 주거형태 관련

▣ 산출 결과

주거형태(일부 중복선택)	비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자가	1.45%	6.27%	1.12%	1.93%
임차	54.12%	51.84%	55.70%	57.11%
무상거주	41.35%	43.87%	39.48%	37.32%
기타	5.98%	18.28%	6.22%	6.17%

항 목	액수(만 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의 평균 임차보증금	3,423	3,076	2,909	3,504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의 평균 월 차임	72	70	66	69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의 임차보증금 중위값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의 월 차임 중위값	50	46	45	45

▣ 분석

- [2023년도] 임차나 무상거주 형태의 채무자 비율이 **94.43%**로 대부분임
- [과거연도와 비교] 2021년도 이후 “임차”의 비율은 **증가**하고 “무상거주”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거주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의 중위값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음



9. 월수입 관련

▣ 산출 결과

항 목	액수(만 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채무자들의 월수입 평균값	66	69	71	71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	50	54	55	50

수입	비 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00만 원 이하	78.40%	61.69%	74.71%	74.52%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11.00%	19.23%	12.44%	12.01%
1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6.30%	10.57%	7.27%	7.45%
20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1.30%	2.56%	2.32%	2.44%
25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1.50%	3.15%	1.48%	1.84%
300만 원 초과	1.50%	2.80%	1.78%	1.73%

▣ 분석

- [2023년도] 월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채무자가 74.52%로 상당히 높음
- [과거연도와 비교] 2023년 통계의 경우, 모든 구간 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함



10. 채무자의 재산 관련

■ 산출 결과⁹⁾

재산 총합계	비율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500만 원 이하	32.06%	33.42%	33.97%	31.58%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	12.10%	14.37%	14.47%	13.36%
1,0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7.99%	8.07%	8.49%	9.07%
1,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4.57%	4.64%	4.80%	4.67%
2,000만 원 초과~2,500만 원 이하	3.54%	4.11%	4.14%	4.08%
2,5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2.43%	2.65%	2.45%	2.68%
3,000만 원 초과~3,500만 원 이하	2.49%	2.46%	2.35%	2.09%
3,5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2.07%	1.54%	1.61%	1.49%
4,0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1.58%	1.72%	1.49%	1.51%
4,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16%	1.33%	1.34%	1.15%
5,000만 원 초과	29.99%	26.69%	24.91%	28.31%

항 목	재산 총합계(만 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평균값	14,594	12,759	13,382	15,548
중위값	1,341	1,027	1,060	1,220

■ 분석

- [2023년도] 재산 총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가 **44.94%**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연도와 비교] 채무자의 “재산 총합계” 평균값 및 중위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였고, 평균값의 경우 2020년도 수치를 상회함. 이와 관련하여 재산 총합계 “5,000만 원 초과”의 채무자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1,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 비율은 감소하였음

9) 재산의 경우 총합으로 관리되어 재산항목별 구분 통계는 추출할 수 없었음



Ⅲ. 산출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요약

▣ 2023년 통계에 대한 분석

-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점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임. 파탄에 이른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파탄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또는 “**생활비 지출증가**”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 “**재해, 사고**”, “**이혼**”,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경우의 비율은 낮았음
- “**채무총액**”의 중위값(10,208만 원)이 “**재산 총합계**”의 중위값(1,220만 원)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채무자들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됨**
-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높지는 않으나 증가추세에 있음**
- “**5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이 **76.96%**로 대부분을 차지함
- 부양가족과 관련하여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가 **64.95%**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 관련하여서는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무상거주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월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월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이 74.52%**로 상당히 높음



▣ 과거 통계와의 비교

- 파탄시기로부터 파산신청시까지의 기간과 관련하여, 파탄원인이 발생한 동일 연도 내지 그 다음해까지 **조기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 파탄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지 20년이 경과한 채무자들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 파탄원인과 관련하여, 주요 파탄원인인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의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반면,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의 비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 11.29%로 증가한 이후 2023년에도 10.95%로 비슷한 비율임
- “채무총액” 평균값 및 중위값이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2020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하여 평균값은 증가하고 중위값은 소폭 감소하였음
-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2022년에 비하여 “49세 이하”인 채무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5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음
- “미성년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음
-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임차”와 “무상거주”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임차”의 비율이 증가하고 “무상거주”의 비율이 감소하였음
- 월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금액 구간의 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50만 원 이하” 구간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고, “1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구간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음
- 채무자의 “재산 총합계” 평균값 및 중위값이 2021년 상당히 감소한 이후 다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3년도 평균값(15,548만 원)은 2020년도 평균값(14,594만 원)을 상회함.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산 총합계



“5,000만 원 초과”의 채무자 비율이 상승하고,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 비율이 감소하였음